

FOCUS
크리틱

마음의 영토화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6: 김수자展
7. 27~2017. 2.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타원형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이 테이블 주변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인 김수자의 <마음의 기하학>전이다. 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느낌의 무게를 실제의 덩어리로 구체화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거대한 테이블은 마음에 부피와 무게, 형태와 질감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이다.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을 들여다 볼 시간을 얻었다. 밀가루 반죽을 하듯 욕심껏, 혹은 수줍게 점토를 뜯어 손바닥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구(球)를 만든다. 욕심이 많아도 손바닥의 크기와 팔의 길이가 허용하는 만큼의 구를 만들 수 있다. 욕심이 없어도 작은 구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매개체를 선사한다. 사람들은 그 매개체를 손으로 만지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몸의 변화만큼 물질의 변화에 섬세하게 반응한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행동일 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행동. 반죽을 떼어서 원형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경험도 대단한 지식도 필요치 않는 아마도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전시장에 입장해 프로젝트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 한 종류의 점토로 오로지 원형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일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굳이

특정한 형태를 찾아야 한다면 그것이 곧 원형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필연적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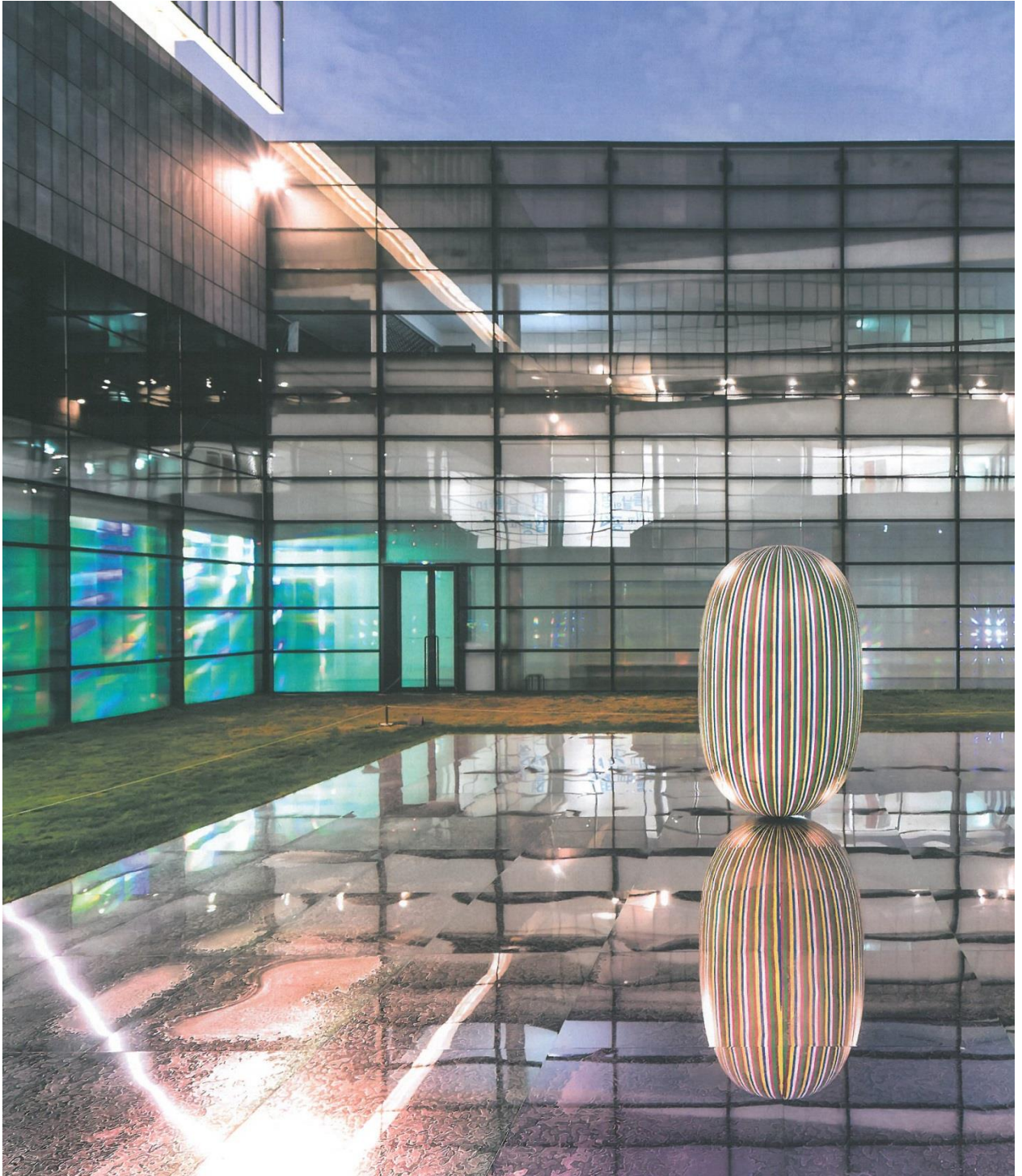
일상적 행위로 현실 탈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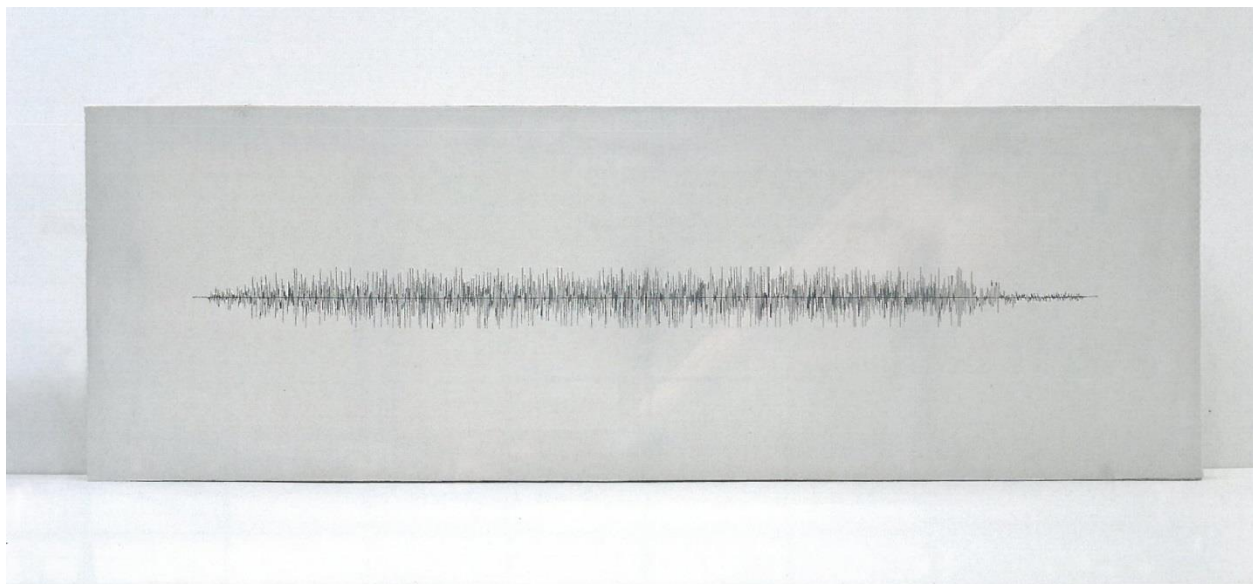
일상은 반복이고 이런 반복적 행위가 우리를 다른 지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널목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개의 경우 반복적 일상은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는 시간이기에 형태를 갖지 않는다. 일상은 역사에 반하는 시간이기에 사회적 가치에서 탈각된 경험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이 형태를 갖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존이다. 생존이야말로 가능성으로서의 삶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삶이라 일컫는 것들은 사회적 질서에 속해 있다. 생존은 이러한 질서에 벗어난다. 문화는 생존을 감추고 생리적 현상부터 생존을 위한 행위들을 비체(aject)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주저 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행위가 겉으로는 생존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토르넬로(ritornello)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는 노래를 예로 들었다. “속삭이는 노랫소리에 몸을 맡기고 자기 집 밖으로 나서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범한 한 아이의 통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운동이나 동작, 음향의 선 위에서 ‘방향의 선’이 생겨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리, 매듭, 속도, 운동, 동작과 음향이 나타난다.”¹⁾ 그들은 방향의 선(카오스)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 리듬과 환경을 만드는 기제라고 강조한다. 이번 전시를 기회로 김수자의 발자취를 거슬러 따라가 보니, 그녀가 도달한 예술적 가치는 주로 매우 일반적인 것,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선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별보 보따리 바늘 등 김수자와 함께 떠올리는 사물들은 한결같이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들이다.

우리는 진리가 아득히 멀고 높은 곳에 있다고 믿곤 한다. 별빛을 보면서 이를 수 없는 약속을 나누고, 높고 유명한 기념비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기원을 읊조린다. 그런데 이런 기원을 담은 물질은 연약하고 소박한 것들로 이뤄지곤 한다. 산행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돌탑은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기원들을 담은 돌들로 만들어진 탑이다. 때론 거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만고만한 높이의 돌탑들이 자연 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다. 그것은 공적 약속이나 제도로는 불가능한 어떤 원초적 행위에 가깝다. 동지팔죽에 넣을 새알심을 빚으면서 알 수 없는 기도를 올리던 외할머니의 몸짓과 목소리처럼 말이다.

<연역적 오브제> 철, 페인트, 거울 150×245cm(조각), 1,000×1,000cm(거울)
2016_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6 <김수자-마음의 기하학>전 전경,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조각 등 총 9점이 출품됐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





위·(숨) 세틴 위에
디지털 자수 61×180cm
2004/2016 작가의 '호흡
사운드 퍼포먼스' (직물
공장)(2004)의 음파 그래픽의
한 숨을 디지털 자수로 수놓은
평면 작업.
아래·(마음의 기하학)
퍼포먼스 및 설치 2016_지름
19미터 기량의 타원형
나무탁자 위에 관람객이 चल
당어리를 구(球)의 형태로 빛은
관객 참여형 워크숍 형식의
작품.

1)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새물결, 2001),
p. 591.
2) 같은 책, p. 600

〈연역적 오브제〉(2016)는 작가의 명상적 세계관을
비움의 미학으로 제시하는 조각 설치 작업이다. 사실
사회구조가 다종다양해지는 데에 반하여 삶의 가치는
진보다 더 적나라해진 게 현실이다. 오늘날 명상이라는
낱말이 주는 의미는 자기 계발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과 명상의 관계는 다소 정형화된 인식의
틀을 형성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가를 영적
지도자로, 기인으로, 초월적 존재로 과장했다.

반면 김수자의 명상은 무엇보다 반복과 차이를
생성한다. 〈마음의 기하학〉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질을
이용해 물리적 행위를 반복하여 공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끈이어 이 구를 테이블 위에 남겨놓음으로써
테이블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영토가 된다.

“예술가는 경계표를 세우거나 지표를 만드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²⁾처럼 김수자의 세계에 초대된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표를 남기고 떠난다. 들뢰즈/가타리에게 영토란 지표에
의하여 영역을 만드는 행위와 같다.

‘바늘 여인’, 새 영토를 직조하다

바늘 여인이 되어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역사 이념 문명의
경계를 꿰뚫으면서 동시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미 평면
작업을 하면서부터 잠재되어 있었다. 서양이 개발한
미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평면성의 극복에서 출발했다.
이는 착시라는 가상의 세계로 이어졌다. 김수자는 평면의
극복을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자각했다. 착시가 아닌
물질적 차원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김수자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개념일 것이다.

〈실의 궤적 V〉(2016)는 디지털 기술로 재편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인류학적 뿌리를 보존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공기의
변화를 기록한 영상 작업이다. 이미 김수자는 2010년 전시
〈지수화풍〉을 통하여 인류가 아닌 지구의 원천을 좇아
자연의 순환을 다뤘다. 이 바늘여인의 여정은 대자연과
조우한다. 현대문명의 바깥에서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를 이어가는 소수민족의 삶을 기록한 〈실의 궤적
V〉는 여성의 수공예적 노동을 승고한 행위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마이너리티는 기득권의 요구에 맞는 도구가
되거나 보존의 논리에 의하여 박제화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마이너리티를 다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배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려는 실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마이너리티를 대상화하거나
인류학적 의미를 담아 기록이 아닌 삶과 노동, 일상과 일의
경계가 희미한 시절에 대한 시적 영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바늘과 손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여인의 모습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희귀한 장면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위한 용기를 제작하는 노련하고
지혜로운 행위다. 이처럼 김수자에게 명상이란 자신만의
수행을 넘어선다. 작가는 스스로 바늘이 되어 세계의
곳곳을 직조한 것처럼, 영상 작업 또한 대자연을 씨실로
삼고 있다. 또한 수많은 바늘 여인들을 낱실로 삼아 새로운
영토를 직조하고 있다.

김수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빛과 소리,
호흡과 리듬, 몸짓과 행위를 통하여 명상의 영토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하 중정의 유리 벽면을 이용해
〈호흡〉(2016)을 통해 절정을 향한다. 건축 구조물 위에
특수 필름을 랩핑하여 빛의 스펙트럼이 시시각각 변하게
하는 장소특정적 작업이다. 중정에는 타원형 조형물
〈연역적 오브제〉(2016)가 보파리를 형상화한 패널 위에
놓여있다. 특수 필름의 영향으로 풍경은 추상화되고
신비로운 빛이 중정 주변에 흩어진다. 빛의 막은 현실
대신 신비로운 세계를 제안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전시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의 중첩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총만감을
넘어서서 의미가 스펙터클로 전환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관람객에게 바라건대, 기왕이면 빛의 스펙트럼에
감동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감각을 지우고 특정한
현상에 몰입해보는 실험을 추천하고 싶다. 작가의 의도도
후자에 더 가까우리라 믿는다.

/ 정 현